

3. 교직원 건강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1) 교직원이 느끼는 건강관리의 문제점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전체의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교직원이 기대하는 양호교사의 업무내용은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에 대한 기대가 전체의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교직원이 기대하는 상담 및 보건교육의 내용은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35.2% 이었고, 그다음이 정기 건강진단에 대한 사전·사후 교육 및 관리의 내용으로 31.9%를 차지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음 몇가지 점은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첫째,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교직원 건강관리사업은 매2년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피보험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학교교육의 목적달성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직원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질환에 대하여 별도의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추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양호실이 교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양호실 육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둘째, 학교보건사업에 있어서 교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양호교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교직원의 건강문제 파악은 건강진단 결과나 설문조사 또는 양호실 이용자의 건강문제 분석등으로 충분히 파악될 수 없으므로 양호교사는 교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교직원용 양호 기록지를 마련하고 전교직원을 대상으로한 지속적인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등을 통하여 그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는 한편 효율적인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셋째, 양호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절실하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교직원을 관리할 수 있고 건강문제 발견 방법 및 교직원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하여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양호교사의 능력함양을 위한 계속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서울시내 남녀고교생의 흡연에 관한 태도 조사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8.

심 영 애

남여고교생의 흡연태도를 평가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탐색하고자 1988년 10월 21일에서 10월 26일 사이에 자유기술식 작문에 의한 120명 고등학생의 예비조사결과를 통해 개발된 설문지에 의하여 흡연태도를 조사하였다.

흡연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1점부터 흡연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5점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Likert 5점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화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712부였고 불충분한 자료 65부를 제외한 647부의 자료를 Spss Package 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또한 기술적 통계와 요인분석, Pearson 상관계수,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한 결론을 얻었다.

1. 남여고교생의 흡연태도는 신체적·정서적·윤리적·기타 영역별로 각각 평균 1.78, 2.63, 2.61, 2.29로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부정적 태도는 신체적 영역에서 제일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태도는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성인 준비기에 있는 청소년이 정서적·윤리적 및 기타 영역에서는 흡연에 관해 강한 호기심을 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각 영역별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학생의 흡연경험정도 변수로서, 영역에서 가장 낮은 13.2% 부터 정서적 영역에서 가장 높은 25.2% 로써 학생의 흡연태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 즉 학생의 흡연경험이 점차 늘어갈수록 흡연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잠재적 학생흡연인구에 대한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긴요시된다고 하겠다.

각 영역에 고루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수로써 학년, 연령, 가족내의 흡연자수 변수는 순상관 관계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흡연에 관한 수용도, 성별, 모의 학력과는 역상관 관계에서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학년, 연령, 가족내의 흡연자수가 증가할수록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교사흡연에 무관심하고 금연하기를 원할수록, 여학생일수록,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3. 신체적·정서적·윤리적·기타 영역에 관한 흡연태도 중에서 가장 강하게 부정했던 문항은 첫째, 지나친 흡연은 몸에 나쁘다(1.12) 둘째, 흡연하면 임신·태아에 나쁜영향을 준다(1.13), 셋째,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1.27), 넷째, 버스나 전차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흡연은 안된다(1.27), 다섯째, 흡연하면 폐에 나쁘다(1.3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긍정했던 문항은 "첫째, 시간과 장소를 알고 피우면 좋다(3.96), 둘째, 흡연은 습관상 피우는 것이다(3.83), 셋째, 흡연하는 사람은 무능력하고 한심해 보인다(3.69), 넷째, 법으로 흡연을 막아야 한다(3.56), 다섯째, 고교생의 어른 흉내로 피우는 것이다(3.52) 순으로 나타났다.

4. 60개의 세부문항 중에서 긍정태도가 가장 강했던 문항은 신체적영역에서 2.72를

나타낸 “③ 흡연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였고, 정서적 영역에서는 평균 3.83을 나타낸 “⑮ 흡연은 습관상 피우는 것이다”였으며, 윤리적 영역에서는 평균 3.96을 나타낸 “⑥ 시간과 장소를 알고 피우면 좋다”였다.

부정태도가 가장 강했던 모양은 신체적 영역에서는 평균 1.12를 나타낸 “⑳ 지나친 흡연은 몸에 나쁘다”였고, 정서적 영역에서는 평균 1.82로 나타난 “㉑ 흡연실·흡연 구역을 만들자”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미성년과 여성의 흡연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성인의 흡연태도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 또한 학년과 연령이 높아지면 서·학생흡연경험은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흡연이 신체적 위해나 질병과 직결된다는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서적·기타 차원에서 흡연을 합리화하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모순되는 심리적 준비상태에서 보건교육이 적기에 신체적·정서적·윤리적 및 기타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부 대학생들의 건강통제위 특성과 자가간호 이행과의 관계연구

중앙의대지 제13권 제1호, 1988.

이승진 · 최경숙 · 이미라

1. 결 론

본 연구는 학교집단 구성원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가간호 이행과 건강통제위 성향과의 관계를 보고, 바람직한 자가간호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내 일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82명이며 조사기간은 1985년 9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이었다.

연구도구는 Wallston & Wallston 이 개발한 다차원 건강통제위 척도를 번역한 것과 본 연구자가 자가간호 이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백분율, T - test, Pearson 적률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자연계 학생이 57.7%, 인문계가 42.3% 차지하였다. 여자가 53.3%로 다소 많았고, 종교는 57.1%가 있으며 경제상태는 74.2%가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연간 이용하는 건강관리 기관은 76.4%가 대부분 약국을 이용하고,